

주요국 예산안

2024 가을 예산안

- 변화를 위한 기반 확립

2024. 12.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본 보고서는 2024년 10월 30일에 영국 재무부(HM Treasury)가 발표한 '2024 가을 예산안(Autumn Budget 2024)'과 예산책임청(OBR)이 발표한 '경제·재정전망(Economic and Fiscal Outlook - October 2024)'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연구진 | 김빛마로 재정지출분석센터장
김정환 재정제도분석팀장
김은숙 선임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1 경제 및 재정 전망 1

가. 경제 전망	1
나. 재정 전망	3

2 재정 기조 및 편성 방향 8

가. 재정 기조	8
나. 정책 방향	9

3 수입 및 지출 규모 전망 11

가. 수입 전망	11
나. 지출 전망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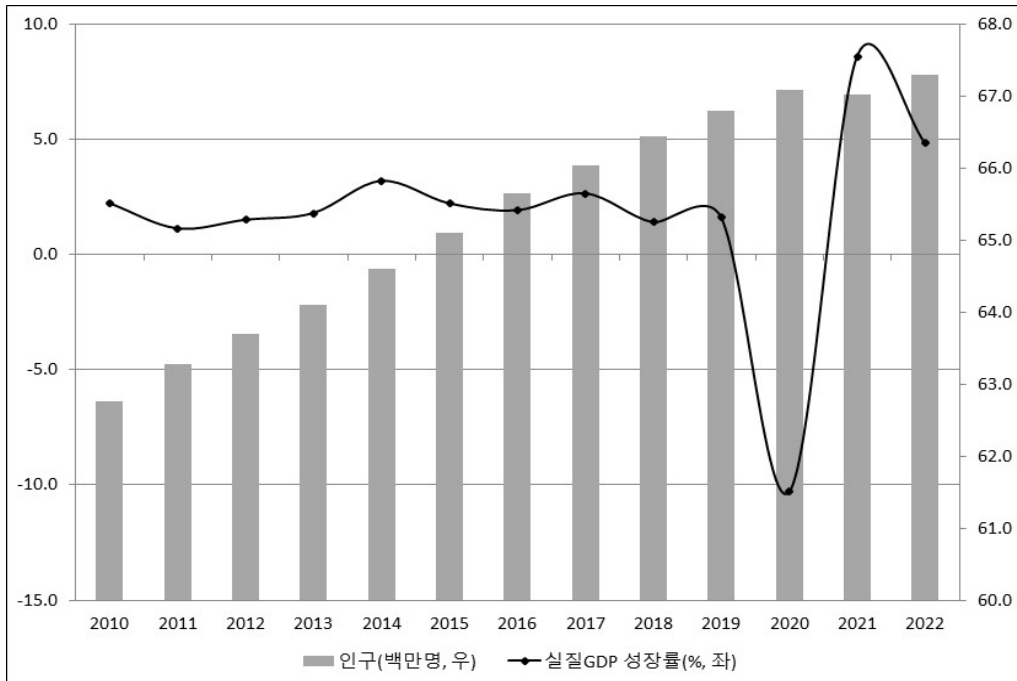
4 주요 정책 23

가. 국가의료서비스(NHS) 개선과 공공서비스 개혁	23
나. 근로자의 생활수준 보호	24
다. 영국 재건	25
라. 공공재정 회복	26
마. 재정 프레임워크 강화	30

영국 개황¹⁾

- 2025-26회계연도: 2025년 4월 ~ 2026년 3월
- 환율: 1파운드 = 약 1,624.19원(2023년 평균)
- 경제규모: 경상 GDP 2조 7,200억 파운드(3조 3,809억 달러)(2023년 기준)
- GDP 대비 수출입 비율(명목): 63.9%(2023년 기준)
- 인구: 6,729만명(2022년 기준)
- 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단위: 백만명, %)



자료: OECD.Data Explorer, 2024.11.4. 추출(<https://data-explorer.oecd.org/>)

- 자료:
 - HM Treasury, *Autumn Budget 2024*, 2024.10.
 -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October 2024*, 2024.10.
 - HM Treasury, "Chancellor chooses a Budget to rebuild Britain," Press release, 2024.10.30.

1) 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24.11.4.), 경제 규모(Current prices 기준), GDP 대비 수출입 비율, 인구, GDP 성장률은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자: 2024.11.4.) 기준

요약 SUMMARY

- (경제 전망) 2023년에 0.1%로 정체되었던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 상반기에 급격히 회복되어 2026년까지 가속화되고, 이후 둔화될 것으로 전망
 - 2024년 1.1%, 2025년 2.0%, 2026년 1.8%, 2027년 1.5%
- (재정 전망) 2025-26회계연도의 공공부문 경상수입은 1조 2,295억파운드(GDP 대비 41.7%), 총관리지출은 1조 3,351억파운드(GDP 대비 45.3%) 전망
 - 공공부문 순차입은 2024-25회계연도에 GDP 대비 4.5%(1,275억파운드)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9-30회계연도에는 2.1%(760억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공공부문 순채무는 2024-25회계연도에 60년 만에 최고치인 GDP 대비 98.4%에서 2028-29회계연도 97.3%, 2029-30회계연도 97.1%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재정 기초) 기초재정수지와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가 2027-28회계연도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등, 지속적인 적자 감소가 물가상승 압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전망 기간 동안 연평균 0.5%p씩 감소하여 2027-28회계연도에는 -0.7%로, 기초재정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정책 방향) 7월 조기 총선을 통해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노동당 정부는 기반 확립을 통한 영국 재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첫 예산안을 편성하여 경제 성장 미션을 완료하고자 함
 - (국가의료서비스(NHS) 개선과 공공서비스 개혁) 국가의료서비스 개선과 교육 시스템 강화 등,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상지출을 평균 3.3% 증액(2023-24회계연도부터 2025-26회계연도의 실질 증가율 기준)
 - (근로자의 생활수준 보호) 근로자에 대한 세금 인상 없는 정책 유지, 최저임금 인상, 연료세 동결, 탄소중립 자동차 지원, 돌봄 수당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호
 - (영국 재건) 긴축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하지 않고, 학교, 병원, 도로 등 국가 기반 시설에 투자하고, 미래 산업을 지원하는 등, 영국을 재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
 - (공공재정 회복) 기업과 부유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의료서비스,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 지원 자금을 마련하고 국가 기반을 구축하는 데 사용
 - (재정 프레임워크 강화) 재정준칙을 개정하고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정비하는 등, 재정 프레임워크를 개혁하여 재정의 확실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

1 |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 2023년에 0.1%로 정체되었던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 상반기에 급격히 회복되어 2026년까지 가속화되고, 이후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 1.1%에서 2025년 2.0%, 2026년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이는 금리가 하락하고 가계 저축률이 정점을 지났으며 재정정책이 일시적으로 수요를 증가시켰기 때문
- 통화정책 완화 효과가 사라지고 재정정책의 수요 지원이 약해지면서, 실질 GDP 성장률은 2027년부터 약 1.5%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물가) 2022년 10월, 41년 만에 최고치인 11.1%를 기록했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망 기간 동안 목표치인 2%에 가깝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 3분기에 약 2%를 기록하였으나, 2025년에는 평균 2.6%로, 일시적인 상승 전망
 - 이는 가스 및 전기 가격 상승, 이번 예산안에서 발표된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 플러스(+의) 산출 갭(GDP gap) 등에 기인
- 산출 갭의 플러스 폭이 축소되고 에너지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2025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차 하락하여 2029년에는 목표치인 2%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노동시장) 2024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0.3%p 높은 4.3%로 전망되고, 이후 4.0%에 가깝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

- 고용률은 2024년 60.0%, 2025년 60.1%, 2026년 60.1%로 단기적으로 다소 상승하고, 이후 60.0%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최고치 대비 약 1.5%p 이상 낮은 수치로, 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기인
- 경제활동참가율은 2024년 62.7%에서 2029년 62.5%까지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는 건강 관련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인구 전반에 나타나는 고령화, 이번 예산안에서 발표된 국민보험기여금(NICs) 고용주 부담 증가 등에 기인

» (가계) 1인당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RHDI)은 2024-25회계연도에 1.4%, 2025-26 회계연도에 1.1% 증가하고, 이후 둔화될 것으로 전망

- 2024-25회계연도와 2025-26회계연도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1.25%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10년 동안의 연평균 수치인 1%보다 높게 전망
 - 이는 임금 기대치가 물가상승 대비 유지되고 있고 순이자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
- 2026-27회계연도와 2027-28회계연도의 증가율은 각각 0.0%, -0.2%로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이는 고용주들의 국민보험기여금 부담 증가가 상당 부분 실질 임금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예측과 기타 세금들의 인상, 연금 수급 연령 상승으로 인한 급여 지급 지연 등에 기인

〈 표 1 〉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p, 백만명)

구분	실적	전망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실질GDP 성장률	0.1	1.1	2.0	1.8	1.5	1.5	1.6
1인당 실질GDP 성장률	-0.8	0.2	1.4	1.3	1.0	1.0	1.1
잠재성장률	1.3	1.6	1.6	1.5	1.7	1.6	1.7
산출 갭(잠재 GDP 대비 %)	0.2	-0.2	0.1	0.4	0.3	0.1	0.0
GDP 주요 구성요소							
- 가계소비	0.3	0.4	1.7	1.9	1.7	1.7	1.7
- 일반정부소비	0.5	3.0	4.0	1.6	1.6	1.8	1.8
- 고정투자	2.2	-0.3	-1.7	2.6	2.3	1.5	1.8
· 기업투자	5.5	-0.4	-1.2	0.5	1.2	1.4	1.9
· 일반정부투자	7.7	2.0	-0.7	6.1	1.1	-1.3	-1.4
· 민간주택투자	-7.6	-1.6	-3.3	4.8	5.5	3.8	3.7
- 재고 변화(%p) ¹⁾	-0.9	-0.1	0.2	0.0	0.0	0.0	0.0
- 수출	-0.5	-1.1	0.6	0.5	0.4	0.5	0.7
- 수입	-1.5	-0.6	-0.8	0.7	1.1	1.0	1.1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7.3	2.5	2.6	2.3	2.1	2.1	2.0
고용(백만명)	33.2	33.1	33.4	33.7	33.9	34.1	34.3
실업률	4.0	4.3	4.1	4.0	4.1	4.1	4.1
생산성(시간당 산출량)	0.0	0.0	1.0	1.2	1.1	1.1	1.1
1인당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	2.0	1.4	1.1	0.0	-0.2	0.6	0.7

주: 1)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October 2024*, 2024.10, p.168, Table A.1, 재구성

나 재정 전망

» (수입·지출) 공공부문 경상수입은 2023-24회계연도에 GDP 대비 40.5%를 기록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20회계연도의 36.9%에서 3.6%p 증가하였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9-30회계연도에는 42.4%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총관리지출은 팬데믹 기간인 2020-21회계연도에 GDP 대비 53.1%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3-24회계연도에 44.9%로 감소하였고, 2024-25회계연도에 45.3%로 다소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29-30회계연도에는 44.5%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재정수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동안 정점을 찍었던 재정수지 적자는 2029-30회계연도까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순차입) 공공부문 순차입은 2024-25회계연도에 GDP 대비 4.5%(1,275억파운드)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9-30회계연도에는 2.1%(760억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24-25회계연도와 2029-30회계연도 사이에 예상되는 약 2.5%p의 차입 감소 중 3분의 2는 수입 증가*, 나머지 3분의 1은 지출 감소**에 기인

* 국민보험기여금 0.6%p, 소득세 0.5%p

** 채무 이자 0.1%p, 총당되지 않은(unfunded) 공공서비스 연금과 학생 대출 0.7%p

- 2024-25회계연도부터 2028-29회계연도까지 총 순차입은 지난 3월 전망보다 1,422억파운드 증가(연평균 284억파운드)하였는데, 이는 최근 몇 년 중에 있었던 가장 큰 재정 완화로, 주요 변화 요인은 다음과 같음(〈표 4〉 참고)

- ◆ 선조치(pre-measure)²⁾로 인한 수입(소득세 등) 증가로 588억파운드 감소, 선조치로 인한 지출(채무 이자 등) 증가로 558억파운드 증가
- ◆ 조세 관련 정책 결정의 직접적인 영향(고용주 국민보험기여금 증가 등)으로 1,406억파운드 감소, 지출 관련 정책 결정의 직접적인 영향(자원지출³⁾ 및 자본지출⁴⁾ 증가 등)으로 3,007억파운드 증가
- ◆ 정책 결정의 간접적인 영향(명목 GDP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 등)으로 149억파운드 감소

- (경상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경상재정수지 적자는 2024-25회계연도에 2.0%(555억파운드)에서 2027-28회계연도에는 0.3%(109억파운드)의 흑자로 전환되고, 이후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2) 이번 예산안에서의 정책 결정 외에 지난 3월과 10월 사이에 일어난 전망 가정, 데이터, 실적치, 정책 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차이를 의미

3) Resource spending: 일상적인 자원 및 관리 비용에 소요되는 경상지출로, 행정비용, 급여, 개인에 대한 보조금(grant), 민간부문 회사에 대한 보조금(subsidy) 등을 포함

4) Capital spending: 신규 투자에 소요되는 지출로,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 민간부문에 대한 자본 보조금(grant), R&D 지출 등을 포함

» (채무)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과 순금융 채무 비율은 각각 2024-25회계연도, 2026-27회계연도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나,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순채무) 공공부문 순채무는 2024-25회계연도에 60년 만에 최고치인 GDP 대비 98.4%에서 2028-29회계연도 97.3%, 2029-30회계연도 97.1%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지난 3월 전망 대비 2023-24회계연도의 순채무 비율은 0.4%p 하향 조정하였으나, 2028-29회계연도에는 3.0%p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이번 예산안에서 발표된 정책 결정으로 인해 순차입이 늘어났기 때문
- (순금융 채무) 공공부문 순금융 채무는 2024-25회계연도에 GDP 대비 83.5%에서 2026-27회계연도에 84.2%까지 상승한 후 2029-30회계연도에 83.4%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표 2 〉 주요 재정지표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실적	전망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7-28	2029-30
수입·지출							
공공부문 경상수입(a)	40.5	40.8	41.7	42.2	42.5	42.4	42.4
총관리지출(TME)(b)	44.9	45.3	45.3	45.1	44.8	44.6	44.5
공공부문 경상지출(c)	40.0	40.3	40.1	39.9	39.7	39.6	39.7
공공부문 순투자(d)	2.6	2.6	2.7	2.7	2.6	2.5	2.4
감가상각(e)	2.4	2.5	2.5	2.5	2.5	2.4	2.4
재정적자							
공공부문 순차입(b-a)	4.5	4.5	3.6	2.9	2.3	2.2	2.1
경기조정 순차입	4.7	4.4	3.7	3.1	2.5	2.3	2.1
경상재정수지 적자(c+e-a)	1.9	2.0	0.9	0.2	-0.3	-0.3	-0.3
경기조정 경상재정수지 적자	2.1	1.9	1.0	0.4	-0.2	-0.2	-0.3
기초재정수지 적자	1.5	1.6	0.7	0.0	-0.7	-0.8	-0.9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적자	1.7	1.5	0.8	0.2	-0.5	-0.7	-0.9
채무							
공공부문 순채무 ¹⁾	97.8	98.4	96.9	97.0	97.2	97.3	97.1
공공부문 순채무 (중앙은행 제외)	88.9	91.8	93.1	94.4	95.1	95.6	95.8
공공부문 순금융 채무 ²⁾	82.8	83.5	83.8	84.2	84.1	83.9	83.4
국제 비교							
일반정부 순차입	5.4	5.3	4.2	3.6	3.0	2.9	2.7
일반정부 총채무	100.0	103.0	104.1	105.0	105.6	106.0	106.1

주: 1) 공공부문 순채무 = 일반정부 채무 + 기타 공공 채무 - 유동성 금융 자산

2) 공공부문 순금융 채무 = 일반정부 채무 + 기타 공공 채무 + 기타 부채 - 유동성 금융 자산 - 비유동성 금융 자산*

* 학자금 대출, 금융위기 동안 인수된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등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October 2024*, 2024.10, p.176, Table A.9, 재구성

〈 표 3 〉 주요 재정지표 규모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실적	전망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7-28	2029-30
수입·지출							
공공부문 경상수입(a)	1,100.8	1,148.7	1,229.5	1,290.5	1,346.0	1,389.8	1,439.9
총관리지출(TME)(b)	1,222.7	1,276.2	1,335.1	1,379.0	1,418.1	1,461.7	1,510.5
공공부문 경상지출(c)	1,087.8	1,134.4	1,182.8	1,220.5	1,257.2	1,300.1	1,347.5
공공부문 순투자(d)	69.6	72.0	79.4	83.2	83.1	81.2	80.5
감가상각(e)	65.3	69.7	72.8	75.3	77.9	80.3	82.5
재정적자							
공공부문 순차입(b-a)	121.9	127.5	105.6	88.5	72.2	71.9	70.6
경기조정 순차입	127.7	124.2	107.8	95.5	78.0	75.1	71.4
경상재정수지 적자(c+e-a)	52.3	55.5	26.2	5.2	-10.9	-9.3	-9.9
경기조정 경상수지 적자	58.1	52.2	28.4	12.2	-5.1	-6.2	-9.1
기초재정수지 적자	40.6	46.0	20.1	0.1	-20.8	-25.6	-30.4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적자	46.4	42.7	22.3	6.9	-15.0	-22.4	-29.6
채무							
공공부문 순금융 채무 ¹⁾	2,285.2	2,407.6	2,518.4	2,621.7	2,709.9	2,798.6	2,885.9
공공부문 순채무 ²⁾	2,699.6	2,835.6	2,913.0	3,018.2	3,133.4	3,247.9	3,360.9
공공부문 순채무 (중앙은행 제외)	2,452.4	2,644.2	2,799.4	2,937.8	3,062.8	3,190.1	3,313.4
국제 비교							
일반정부 순차입	149.3	146.3	115.8	106.1	91.1	94.3	90.9
일반정부 총채무	2,736.3	2,924.2	3,078.5	3,218.8	3,346.6	3,477.3	3,604.4

주: 1) 공공부문 순금융 채무 = 일반정부 채무 + 기타 공공 채무 + 기타 부채 - 유동성 금융 자산 - 비유동성 금융 자산
 2) 공공부문 순채무 = 일반정부 채무 + 기타 공공 채무 - 유동성 금융 자산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October 2024*, 2024.10, p.172, Table A.5;
 —, —————, 2024.10, p.174, Table A.7;
 —, —————, 2024.10, p.176, Table A.9;
 —, Public finances databank - October 2024, 2024.10.30, 재구성

〈 표 4 〉 공공부문 순차입 전망 변화 - 2024년 3월 전망 vs. 10월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실적	전망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8-29	2029-30
2024년 3월 전망(a)	114.1	87.2	77.5	68.7	50.6	39.4	-
2024년 10월 전망(b)	121.9	127.5	105.6	88.5	72.2	71.9	70.6
차이(b-a)	7.8	40.3	28.1	19.8	21.6	32.5	-
- 선조치로 인한 차이	-	20.7	-0.9	-7.8	-9.8	-5.2	-
· 수입	-	-1.5	-15.7	-16.1	-15.5	-9.9	-
· 지출	-	22.2	14.8	8.2	5.7	4.8	-
(채무 이자 지출)	-	(14.4)	(9.7)	(4.0)	(1.4)	(-1.7)	-
- 정책 결정의 직접적인 영향 ¹⁾	-	23.7	34.8	32.4	33.4	35.7	30.1
· 조세 정책 결정	-	-1.3	-24.7	-35.0	-39.4	-40.1	-41.5
(고용주 국민보험기여금)	-	(0.0)	(-23.8)	(-23.7)	(-24.2)	(-24.9)	(-25.7)
(국세청 조세회피방지)	-	(-0.3)	(-1.3)	(-3.3)	(-4.1)	(-4.9)	(-6.2)
(자본이득세)	-	(-0.2)	(-1.5)	(-5.7)	(-8.7)	(-6.9)	(-5.2)
· 지출 정책 결정	-	25.0	59.6	67.4	72.9	75.8	71.6
(자원지출)	-	(23.1)	(41.7)	(43.9)	(47.0)	(48.5)	(47.0)
(자본지출)	-	(1.9)	(17.9)	(23.4)	(25.9)	(27.3)	(24.6)
- 정책 결정의 간접적인 영향	-	-4.1	-5.9	-4.8	-2.0	1.9	5.9
· 수입	-	-4.3	-11.6	-14.2	-13.5	-11.8	-10.1
· 지출	-	0.2	5.7	9.4	11.5	13.7	16.0
(채무 이자 지출)	-	(1.5)	(7.1)	(8.0)	(8.5)	(10.0)	(11.4)

주: 1) 각 정책 결정의 세부내역과 수치는 HM Treasury, *Autumn Budget 2024*, pp.115-122, Table 5.1 참고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October 2024*, 2024.10, p.136, Table 6.1, 재구성

» (재정 목표에 대한 성과 분석⁵⁾) 예산책임청(OBR)은 정부 정책 하에서 재정 목표(재정 준칙)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분석

- (재정 목표) 예산책임청 개정안에 재정 목표로 재정수지 준칙을, 보완적 목표로 채무 준칙과 복지지출 한도에 대해 명시⁶⁾
 - (재정수지 준칙) 2029-30회계연도의 경상재정수지는 흑자
 - (채무 준칙) 2029-30회계연도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금융 채무 비율은 감소
 - (복지지출⁷⁾ 한도) 2029-30회계연도 복지지출을 재무부가 사전에 설정한 한도와

5) 예산책임청(OBR)은 예산책임청에 따라 정부 정책 하에서 재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50%이상인지 여부를 판단

6) 재정준칙 개정 관련 내용은 본 보고서 p.30 참고

7) 복지지출 한도에 포함되는 지출 항목은 돌봄 수당(Carer's Allowance),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 Support Allowance), 소득지원

마진(margin) 이내로 관리

- (성과 분석 결과) 재정 목표와 보완적 목표를 모두 충족할 것으로 전망되나, 마진(여유분)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
 - (재정수지 준칙) 2029-30회계연도의 GDP 대비 경상재정수지는 0.3% 흑자로, 0.3%(99억파운드)의 마진이 예상되어 충족될 것으로 평가
 - (채무 준칙) 2029-30회계연도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금융 채무는 전년 대비 0.5% 감소하여 0.5%(157억파운드)의 마진이 예상되어 충족될 것으로 평가
 - (복지지출 한도) 2029-30회계연도의 복지지출은 한도의 5%(97억파운드)의 마진이 예상되어 충족될 것으로 평가

〈 표 5 〉 재정 목표에 대한 성과 분석

(단위: %, 십억파운드)

구분	평가	GDP 대비 비율		규모		달성 가능성
		전망	마진	전망	마진	
2029-30회계연도 경상재정수지	충족	0.3	0.3	9.9	9.9	54
2029-30회계연도 공공부문 순금융 채무의 전년 대비 변화	충족	-0.5	0.5	-	15.7	51
2029-30회계연도 복지지출	충족	-	-	194.5	9.7	-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October 2024*, 2024.10, p.152, Table 7.1, 재구성

〈 표 6 〉 복지지출 한도와 마진

(단위: %, 십억파운드)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7-28	2029-30
복지지출 한도	-	-	-	-	-	194.5
이행경로	161.7	166.8	172.6	179.0	186.4	-
마진(%)	0.5	1.0	2.0	3.0	4.0	5.0
마진	0.8	1.7	3.5	5.4	7.5	9.7
이행경로+마진	162.5	168.5	176.0	184.4	193.8	204.2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October 2024*, 2024.10, p.155, Table 7.2

(Income Support),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 보육비지원(Tax Free Childcare) 등 25개

2 | 재정 기조 및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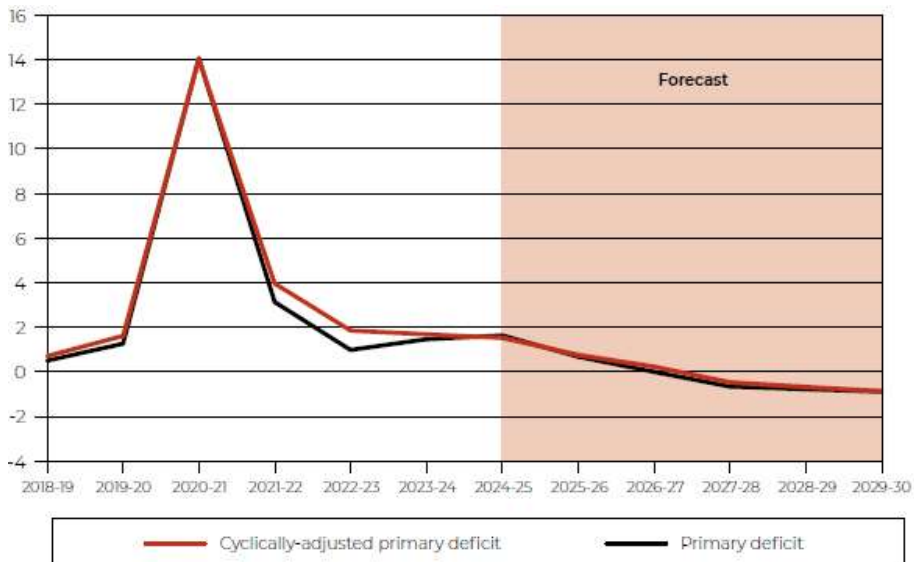
가 재정 기조⁸⁾

» 기초재정수지와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가 2027-28회계연도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등, 지속적인 적자 감소가 물가상승 압력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기초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전망 기간 동안 연평균 0.5%p씩 감소하여 2027-28회계연도에는 -0.7%로, 기초재정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이는 물가상승 압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독립적인 통화정책위원회가 물가 목표를 지속가능하게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세수 증가가 기초재정수지 적자 감소의 3분의 2를 기여하고, 지출 감소는 3분의 1을 기여
-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적자) 최근 몇 년 동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높게 나타났으나, 향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그림 1 〉 재정기조

(단위: GDP 대비 %)



자료: HM Treasury, *Autumn Budget 2024*, 2024.10, p.28, Chart 1.7

8) 재정정책은 경제에 수요를 추가하거나(확장적 재정 기조) 줄여(긴축적 재정 기조) 성장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재정 기조(fiscal stance)는 순차입, 기초재정수지 적자,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적자 등의 지표로 평가할 수 있음

나 정책 방향

» 노동당 정부⁹⁾는 기반 확립을 통한 영국 재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첫 예산안을 편성하여 경제 성장 미션을 완료하고자 하였고, 특히 보도자료¹⁰⁾를 통해 다음 다섯 가지를 강조¹¹⁾)

- (국가의료서비스(NHS) 개선과 공공서비스 개혁) 국가의료서비스 개선과 교육 시스템 강화 등,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상지출을 평균 3.3% 증액(2023-24회계연도부터 2025-26회계연도의 실질 증가율 기준)
 - 보건·사회복지부에 2024-25 및 2025-26 회계연도 동안 경상지출 226억파운드를 추가 배정하여, NHS가 매주 4만건의 추가 선택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NHS 대기 시간을 감축
 - 교육 개선을 위해 2024-25회계연도에 40억파운드를 추가 지원하되, 그 중 23억파운드는 핵심 학교(core school) 예산¹²⁾에 배정하여 학생 1인당 지출을 실질적으로 증액
- (근로자의 생활수준 보호) 근로자에 대한 세금 인상 없는 정책 유지, 최저임금 인상, 연료세 동결, 탄소중립 자동차 지원, 돌봄 수당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호
 - 근로자의 국민보험기여금,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이행
 - 2025년 4월부터 법정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을 시간당 11.44파운드에서 12.21파운드로 인상
 - ◆ 이를 통해 300만명의 근로자 연봉이 1,400만파운드 인상되는 효과 발생
 - 연료세 동결 및 휘발유·경유에 대한 리터당 5펜스 인하 정책을 2026년 3월까지 연장
 - ◆ 이는 30억파운드 상당의 세금 인하에 해당
- (영국 재건) 긴축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하지 않고, 학교, 병원, 도로 등 국가 기반 시설에 투자하고, 미래 산업을 지원하는 등, 영국을 재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
 - 향후 5년간 도로, 철도, 학교, 병원 등에 대한 공공투자를 3월 봄 예산안 대비 1,000억파운드 이상 확대하되, 채무를 감소시키는 방향성은 유지
- (공공재정 회복) 기업과 부유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의료서비스,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 지원 자금을 마련하고 국가 기반을 구축하는 데 사용
 - 2025년 4월부터 고용주 국민보험기여금 기본요율을 15%로, 1.2%p 인상하고, 고용주에게

9) 노동당은 2024년 7월 조기 총선을 통해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

10) HM Treasury, "Chancellor chooses a Budget to rebuild Britain," Press release, 2024.10.30.

11) 주요 정책의 세부내용은 본 보고서 pp.23-31의 '4. 주요 정책'을 참고

12)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 지원 자금과 지자체와 학교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포함

- 적용되는 부과 기준액(Secondary Threshold)은 연간 9,100파운드에서 5,000파운드로 하향 조정
-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의 저세율은 10%에서 18%로, 고세율은 20%에서 24%로 인상하여 주거용 부동산 세율과 동일하게 조정
 - ◆ 이를 통해 향후 25억파운드의 세수 증가 예상
- 상속세 면세 기준은 2030년 4월까지 현 수준(325,000파운드)에서 동결되나, 2027년부터 상속받은 연금펀드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
 - ◆ 이를 통해 연금이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산 이전 시 세금 계획 도구로 왜곡되어 활용되는 것을 제한
- (재정 프레임워크 강화) 재정준칙을 개정하고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정비하는 등, 재정 프레임워크를 개혁하여 재정의 확실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
 - 안정성 규칙(stability rule)과 투자 규칙(investment rule)을 기반으로 재정수지 준칙과 채무 준칙을 개정
 - ◆ (안정성 규칙) 경상지출은 세수로만 충당하여 경상재정수지는 균형을 유지(투자지출에 한해 차입을 허용한다는 의미)
 - ◆ (투자 규칙) GDP 대비 공공부문 순금융 채무 비율은 감소
 - 2년마다 지출검토를 실시하여 최소 3년 이상의 계획을 수립
 - ◆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가 중기적인 계획 하에 제공되고 비용 대비 가치가 향상

〈 그림 2 〉 정책 방향 개요



자료: HM Treasury, Autumn Budget 2024, 2024.10, p.62

3 | 수입 및 지출 규모 전망

가 수입 전망

» 공공부문 경상수입은 2024-25회계연도 1조 1,487억파운드, 2025-26회계연도 1조 2,295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각각 4.4%,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공공부문 경상수입은 2023-24회계연도에 1조 1,008억파운드를 기록하였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9-30회계연도에는 1조 4,399억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표 7〉 참고)
 - 지난 3월 전망과 비교하면, 2024-25회계연도의 경상수입은 96억파운드 증가하고, 2025-26회계연도부터 2028-29회계연도까지는 연평균 663억파운드 증가
 - ◆ 이는 주로 고용주의 국민보험기여금 인상, 평균 소득 증가, 2027-28회계연도까지 소득세와 국민보험기여금 기준 동결,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보험기여금, 소득세, 자본세(부동산 취득세, 자본이득세, 상속세 등) 증가 등에 기인
- 조세부담률(GDP 대비 국민계정 조세수입 비율)은 2023-24회계연도에 36.0%에서 2029-30회계연도에 38.2%까지 2.2%p 증가할 것으로 전망(〈그림 3〉 참고)
 - 조세부담률 증가에 개인세(소득세, 국민보험기여금), 자본세(자본이득세, 상속세 등)가 가장 크게 기여(각각 1.3%p, 0.8%p)
 - ◆ 개인세 수입 증가는 고용주에 대한 국민보험기여금 인상과 명목소득 성장, 향후 2년 동안의 소득세와 국민보험기여금 기준 동결 등에 기인
 - ◆ 자본세 수입 증가는 주식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기인
- 2025-26회계연도 공공부문 경상수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득세가 3,290억파운드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부가가치세(환급분 포함)¹³⁾ 2,140억파운드, 국민보험기여금 1,990억파운드, 법인세 1,050억파운드 등의 순(〈그림 4〉 참고)

13) 부가가치세에는 환급분이 포함되는데, 이는 분류체계 상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재정지출로 분류되어 수입에서도 제외되지 않기 때문임(〈표 8〉 참고)

〈 표 7 〉 공공부문 경상수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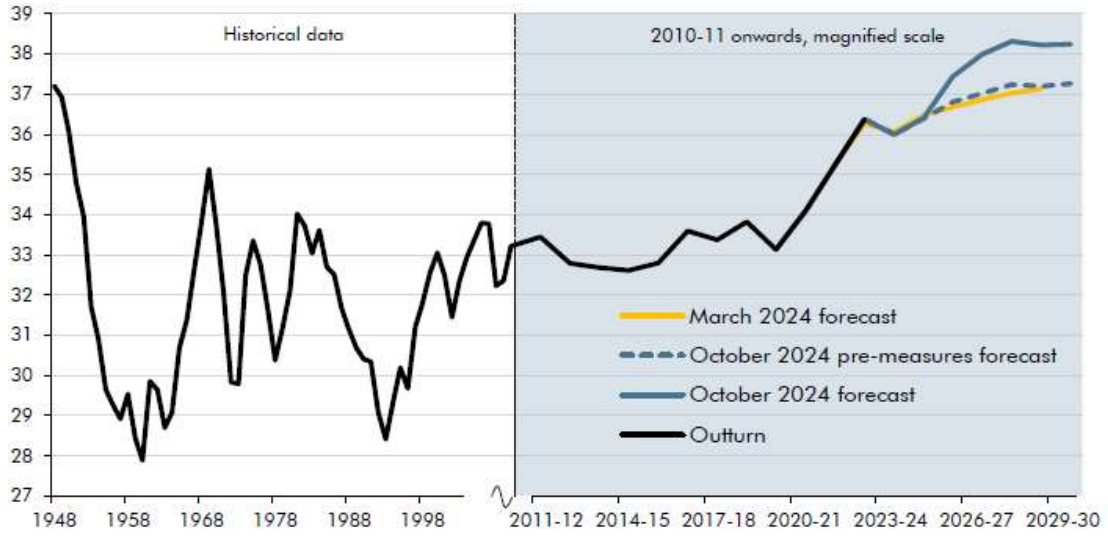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실적	전망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8-29	2029-30
소득세	277.4	311.4	328.7	353.3	372.6	379.6	392.1
국민보험기여금(NICs)	179.1	167.5	198.8	204.7	210.5	216.8	223.1
부가가치세	168.9	171.2	181.2	189.2	198.2	205.3	213.7
법인세	94.1	101.1	104.8	108.4	112.2	117.0	121.8
석유세	-0.4	-0.3	-0.3	-0.2	-0.1	-0.1	-0.1
연료세	24.8	24.3	24.3	27.0	27.4	27.6	27.4
비주거용 재산세	29.3	32.1	34.4	37.4	37.9	38.7	39.8
지방세(Council tax)	44.5	47.6	50.0	52.5	55.3	58.1	61.1
부가가치세 환급	28.1	30.4	32.5	33.2	34.3	35.2	36.5
자본이득세	14.5	15.7	22.6	22.0	24.8	28.1	31.0
상속세	7.5	8.3	8.7	9.5	11.2	12.8	13.9
부동산취득세	12.8	14.1	16.1	18.5	21.0	23.3	25.4
주식취득세	3.2	4.2	4.3	4.5	4.7	4.8	5.0
담배세	9.0	8.7	8.7	8.6	8.6	8.6	8.5
주세	12.5	12.4	13.1	13.8	14.5	15.2	15.9
항공여객세	3.9	4.2	4.7	5.5	5.8	6.1	6.5
보험료세	8.4	8.8	9.0	9.2	9.4	9.6	9.7
기후변화세	1.9	1.9	1.9	1.8	1.8	1.7	1.8
은행세(Bank levy)	1.5	1.3	1.3	1.3	1.2	1.2	1.2
은행특별세(Bank surcharge)	1.5	1.0	0.9	0.9	0.9	1.0	1.0
견습세(Apprenticeship Levy)	3.8	4.0	4.2	4.3	4.4	4.5	4.7
디지털서비스세	0.7	0.8	0.8	0.9	1.0	1.0	1.1
기타 국세(HMRC taxes)	9.9	10.0	9.9	10.4	11.1	11.6	12.0
자동차소비세	7.7	8.2	9.2	9.6	10.1	10.6	11.2
면허료 수입	3.7	3.9	4.0	4.1	4.1	4.2	4.3
환경부담금	9.9	12.0	12.9	15.2	14.3	14.4	14.8
배출거래제	6.0	3.5	2.7	2.4	2.3	1.9	1.6
에너지 이익 부담금(황제세)	2.8	2.9	2.6	2.2	1.8	1.8	1.3
전력 발전 추가부담금	1.2	1.0	0.3	0.0	0.0	0.0	0.0
기타 조세	11.1	12.7	12.3	12.3	12.3	12.5	12.6
국민계정 조세수입	979.2	1,024.8	1,104.6	1,162.5	1,213.7	1,253.3	1,299.2
이자 및 배당	44.4	43.1	40.8	41.2	42.4	43.7	45.4
총운영수지	74.7	78.2	81.2	83.9	86.8	89.6	92.1
기타수입	2.6	2.6	2.9	3.0	3.1	3.2	3.2
경상수입	1,100.8	1,148.7	1,229.5	1,290.5	1,346.0	1,389.8	1,439.9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October 2024*, 2024.10, p.172, Table A.5,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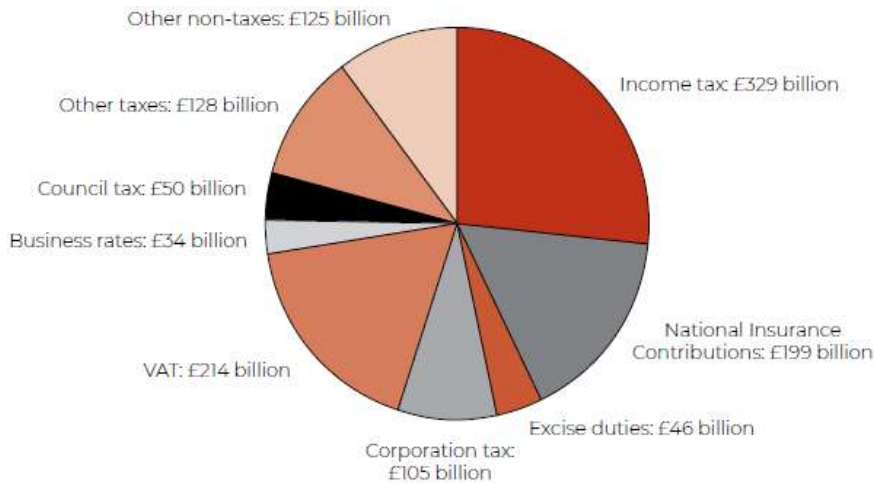
〈 그림 3 〉 조세부담률

(단위: GDP 대비 %)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October 2024*, 2024.10, p.88, Chart 4. 1

〈 그림 4 〉 2025-26회계연도 유형별 공공부문 경상수입



자료: HM Treasury, *Autumn Budget 2024*, 2024.10, p.163, Chart D.1

나 지출 전망

» 공공부문 총관리지출은 2024-25회계연도 1조 2,762억파운드, 2025-26회계연도 1조 3,351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각각 4.4%,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표 8), (그림 5) 참고)

- 공공부문 총관리지출은 2023-24회계연도에 1조 2,227억파운드를 기록하였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9-30회계연도에는 1조 5,105억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지난 3월 전망과 비교하면, 2024-25회계연도의 총관리지출은 498억파운드 증가하고, 2025-26회계연도부터 2028-29회계연도까지는 연평균 918억파운드 증가
 - ◆ 이는 부처별 지출, 채무 이자 지출, 기타 경상지출 증가 등에 기인
- 부처별 지출한도(DEL)는 2023-24회계연도에 5,193억파운드에서 2029-30회계연도에 6,682억파운드까지 증가하나, 총관리지출 대비 비율은 40%를 약간 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¹⁴⁾
 - 2024-25회계연도 부처별 지출한도는 지난 3월 전망 대비 230억파운드 증가
 - ◆ (자원 DEL) 2024-25회계연도 자원 부처별 지출한도는 3월 전망 대비 232억파운드 증가
 -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했던 공공지출 감사¹⁵⁾에서 예상한 219억파운드의 초과 지출과 공공부문 근로자 급여 인상률에 대한 합의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진 영향 등을 반영
 - ◆ (자본 DEL) 2024-25회계연도 자본 부처별 지출한도는 3월 전망 대비 2억파운드 감소
 - 국방부와 내무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의 지출한도는 증액되었고 교통부, 교육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의 자본지출 한도는 감액
 - 2025-26회계연도 부처별 지출한도는 전년 대비 375억파운드 증가
 - ◆ (자원 DEL) 2025-26회계연도 자원 부처별 지출한도는 전년 대비 252억파운드 증가
 - 국가의료서비스 개선, 교육 시스템 강화 등으로 인해 보건·사회복지부, 교육부 등의 자원지출 한도 증액
 - ◆ (자본 DEL) 2025-26회계연도 자본 부처별 지출한도는 전년 대비 123억파운드 증가
 -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보건·사회복지부, 교육부 등의 자본지출 한도 증액
- 연간 관리 지출(AME)¹⁶⁾은 사회복지 지출¹⁷⁾과 채무 이자 지출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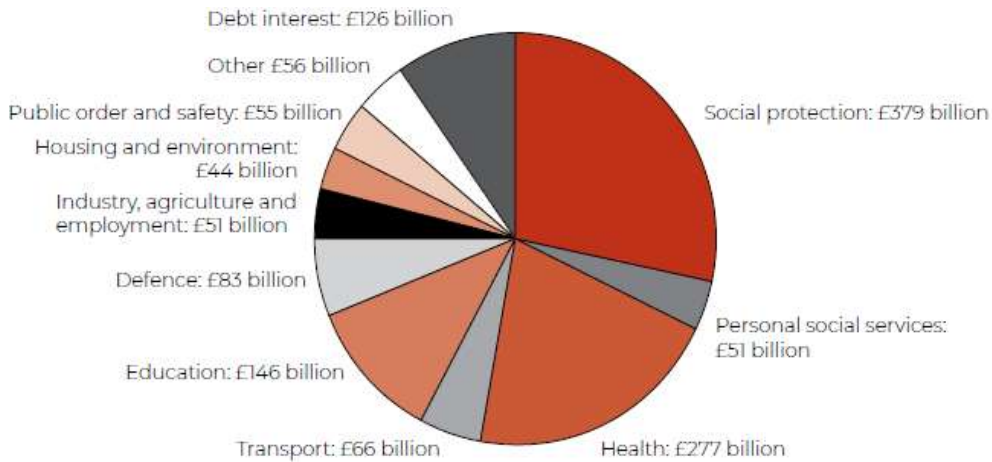
14) 2024-25회계연도와 2025-26회계연도의 부처별 지출한도 배분은 지출검토 1단계를 통해 이루어졌고(본 보고서 pp.17-20 참고), 이후 2029-30회계연도까지의 부처별 지출한도는 자원 부처별 지출한도와 자본 부처별 지출한도의 연간 실질 증가율을 각각 1.3%, 0.5%로 가정하여 연도별 총액만 전망

15) 본 보고서 pp.21-22 참고

16) 수요 주도적(demand-led)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예측이나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특징이 있음

- 사회복지 지출은 2024-25회계연도에 3,136억파운드(GDP 대비 11.1%)에서 2029-30회계연도에는 3,777억파운드(GDP 대비 11.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2024-25회계연도의 사회복지 지출은 전년 대비 173억파운드(5.8%) 증가한 것으로, 이는 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른 급여의 상향 조정 등에 기인
 - ◆ 2025-26회계연도부터 2029-30회계연도까지의 사회복지 지출은 연평균 128억파운드(3.8%) 증가한 것으로, 이는 주로 인구 고령화, 연금 지출 증가, 건강 및 장애 관련 급여 증가 등에 기인
- 총 채무 이자 지출은 2024-25회계연도에 1,049억파운드에서 2029-30회계연도에는 1,222억파운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이는 물가상승률, 은행 금리, 국채 수익률 등의 복합적인 영향을 반영
- 2025-26회계연도 공공부문 총관리지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호가 3,790억파운드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보건 2,770억파운드, 교육 1,460억파운드, 채무 이자 1,260억파운드 등의 순(〈그림 5〉 참고)

〈 그림 5 〉 2025-26회계연도 기능별 공공부문 총관리지출



자료: HM Treasury, *Autumn Budget 2024*, 2024.10, p.164, Chart D.2

17) 사회보장 및 세액공제에 대한 지출을 의미하며, 전망은 주로 인구, 실업, 소득, 물가상승률 등에 대한 최신 데이터와 노동·연금부 모형을 활용

〈 표 8 〉 공공부문 총관리지출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실적	전망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8-29	2029-30
공공부문 경상지출							
자원 DEL	422.7	453.4	478.6	494.7	511.0	527.8	545.6
자원 AME	665.1	681.1	704.3	725.8	746.1	772.3	801.9
사회복지 지출	296.3	313.6	327.5	340.5	349.5	361.4	377.7
지방재정 경상지출	63.5	65.6	68.2	71.1	74.1	77.3	81.0
중앙정부 총 채무 이자 (APF 채무 이자 삭감)	106.7	104.9	105.7	108.2	112.9	117.9	122.2
스코틀랜드정부 경상지출	42.9	46.6	48.0	49.1	49.8	52.4	54.2
EU분담금	7.7	0.9	1.5	1.0	0.3	0.5	0.1
순공공서비스연금 지출	5.1	1.6	0.5	-0.8	-1.2	-2.7	-3.9
기업 및 기타 세액공제	9.7	10.6	11.1	11.3	11.6	11.9	12.2
BBC 경상지출	4.1	4.4	4.1	4.2	4.3	4.3	4.3
국가복권 경상보조금	1.2	1.4	1.4	1.3	1.2	1.2	1.2
일반정부 귀속연금	1.7	1.8	1.9	1.9	2.0	2.0	2.1
공기업 채무 이자	0.5	0.5	0.5	0.5	0.5	0.5	0.5
비가정용 에너지 지원	0.6	0.0	0.0	0.0	0.0	0.0	0.0
가정용 에너지 지원	3.8	0.0	0.0	0.0	0.0	0.0	0.0
공공부문 연금제도 지원	17.6	18.3	19.2	20.1	21.0	22.0	23.0
감가상각	58.3	62.5	65.5	67.9	70.5	73.0	75.3
경상 부가가치세 환급	24.0	26.4	28.5	28.9	29.9	30.8	32.0
환경부담금	11.1	13.2	14.1	16.4	15.5	15.6	16.1
기타 경상지출	12.0	9.9	8.5	6.5	6.6	6.7	6.9
기타 회계조정	-1.8	-1.2	-1.9	-2.2	-2.4	-2.7	-3.0
공공부문 경상지출	1,087.8	1,134.4	1,182.8	1,220.5	1,257.2	1,300.1	1,347.5
공공부문 투자							
자본 DEL	96.6	99.0	111.3	117.2	120.7	121.4	122.6
자본 AME	38.3	42.7	40.9	41.3	40.3	40.1	40.5
지방재정 자본지출	8.6	8.6	7.3	8.0	8.0	8.2	8.5
공기업 자본지출	12.6	12.6	12.6	12.6	12.7	12.8	12.9
학자금 대출	10.0	9.1	8.3	7.9	7.8	7.8	7.8
공공부문 연금제도 지원	0.6	0.7	0.7	0.7	0.7	0.7	0.7
스코틀랜드정부 자본지출	5.6	5.9	6.2	6.6	6.7	6.8	6.8
세무소송	0.8	1.9	0.5	0.5	0.5	0.5	0.5
기타 자본지출	1.2	2.7	4.2	3.7	2.5	1.9	1.7
기타 회계 조정	-1.0	1.1	1.1	1.3	1.4	1.4	1.5
공공부문 투자	134.9	141.7	152.2	158.5	161.0	161.5	163.0
감가상각 공제	-65.3	-69.7	-72.8	-75.3	-77.9	-80.3	-82.5
공공부문 순투자	69.6	72.0	79.4	83.2	83.1	81.2	80.5
총관리지출	1,222.7	1,276.2	1,335.1	1,379.0	1,418.1	1,461.7	1,510.5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October 2024*, 2024.10, p.174, Table A.7, 재구성

[참고 1] 지출검토 1단계(Spending Review Phase1)¹⁸⁾

» 정부는 공공서비스 안정화·지원을 위해 선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경제에 대한 공공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4-25회계연도와 2025-26회계연도의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

- 부처별 지출한도는 2023-24회계연도와 2025-26회계연도 동안 실질적으로 연평균 4.3%씩 증가(〈표 10〉 참고)
 -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3-24회계연도에서 2029-30회계연도까지 연평균 실질 증가율은 2.2%가 될 것으로 예상(〈표 9〉 참고)
- 부처의 경상지출에 해당하는 자원 부처별 지출한도는 2023-24회계연도와 2029-30회계연도 동안 실질적으로 연평균 2.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표 9〉 참고)
 - 교육부, 법무부, 보건·사회복지부와 같이 주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는 2024-25회계연도 및 2025-26회계연도 지출이 실질적으로 증가(〈표 11〉 참고)
- 운송, 주택, R&D 등에 대한 투자지출은 2025-26회계연도부터 2029-30회계연도까지, 향후 5년 동안 지난 3월 전망 대비 1,000억파운드 이상 증가
 - 2025-26회계연도 자본 부처별 지출한도는 1,313억파운드로,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표 12〉 참고)
 - 투자는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명확한 전략과 계획을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계획

〈 표 9 〉 총관리지출

(단위: 십억파운드, %)

구분	실적	계획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7-28	2029-30
경상지출							
자원 AME	596.8	601.8	618.6	637.9	655.4	678.9	705.6
자원 DEL	452.2	488.2	517.2	534.2	551.6	569.5	588.5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 감가상각	38.9	44.5	47.1	48.4	50.1	51.7	53.4
공공부문 경상지출	1,087.7	1,134.4	1,182.8	1,220.5	1,257.2	1,300.1	1,347.5
자본지출							
자본 AME	28.1	25.1	21.0	20.2	19.6	19.2	18.9
자본 DEL	106.8	116.6	131.3	138.4	141.4	142.4	144.1
공공부문 투자	134.9	141.7	152.2	158.5	161.0	161.5	163.0
총관리지출	122.7	1,276.2	1,335.1	1,379.0	1,418.1	1,461.7	1,510.5
총관리지출(GDP 대비 %)	44.9	45.3	45.3	45.1	44.8	44.6	44.5
부처별 지출한도	558.9	604.8	648.4	672.6	693.0	711.9	732.6

자료: HM Treasury, Autumn Budget 2024, 2024.10, p.33, Table 1.7

18) Spending Review: 보통 2~4년마다 이루어지는 중기재정지출계획으로, 향후 3년 동안의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 가장 최근에는 2021년 지출검토에서 2024-25회계연도까지의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 지난 7월에 노동당 정부는 2025년 지출검토를 계획하였고, 1단계 검토결과를 이번 예산안에 반영. 추후 2단계 검토(본 보고서 p.31 참고)를 진행하여 2026-27회계연도까지의 지출 계획을 완료하고, 이를 2025년 봄에 발표할 예정

〈 표 10 〉 부처별 지출한도(감가상각 제외)

(단위: 십억파운드, %)

구분	실적	Baseline	계획	연평균 실질 증가율
	2023-24	2024-25	2025-26	2023-24 ~ 2025-26
보건·사회복지부	188.5	201.9	214.1	3.8
교육부	87.9	94.3	99.7	3.4
내무부	20.3	22.6	22.1	-2.7
법무부	11.9	12.7	13.8	5.6
법률 고문부(Law Officers' Departments)	0.9	1.0	1.1	7.5
국방부	53.9	56.9	59.8	2.3
우크라이나 - 특별수익 가속대출(ERA)	-	0.8	0.8	-
단일정보계정(Single Intelligence Account)	4.2	4.2	4.5	2.4
외교·연방·개발부	11.1	11.2	12.2	1.8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 지방정부	9.6	12.5	14.3	10.2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	10.1	12.3	12.6	9.7
문화·미디어·스포츠부	2.1	2.4	2.3	2.6
과학·혁신·기술부	12.7	13.7	15.1	6.5
교통부	30.0	28.8	30.0	-2.5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6.4	9.0	10.3	22.0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 탄소 포집·활용·저장 및 수소 프로젝트	-	1.4	3.7	-
환경·식품·농촌부	6.8	7.1	7.5	2.7
산업·통상부	2.6	3.5	3.3	10.0
노동·연금부	9.0	9.7	10.8	6.3
국세청	6.7	5.9	6.7	4.5
재무부	0.4	0.4	0.5	1.3
내각부	1.3	1.2	1.4	-5.4
스코틀랜드 정부	43.4	45.2	47.7	2.3
웨일스 정부	19.5	20.1	21.0	1.3
북아일랜드 행정부	16.9	17.2	18.2	1.3
소규모 독립기관들	2.7	3.0	3.2	7.1
개혁 및 혁신 기금	-	-	0.2	-
예비비(Reserves)	-	2.8	6.8	-
예산 조정	-	-1.2	-	-
부처별 지출한도(감가상각 및 세금 변경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 반영 제외)	558.9	600.8	643.7	4.3
조세 변경으로 인한 공제				
부처별 지출한도(감가상각 제외)	558.9	600.8	648.4	-

주: 각 회계연도의 금액은 경상가격(current price) 기준
 자료: HM Treasury, Autumn Budget 2024, 2024.10, p.35, Table 1.8

〈 표 11 〉 자원 부처별 지출한도(감가상각 제외)

(단위: 십억파운드, %)

구분	실적	Baseline	계획	연평균 실질 증가율
	2023-24	2024-25	2025-26	2023-24 ~ 2025-26
보건·사회복지부	177.9	190.1	200.5	3.4
- NHS England	171.0	181.4	192.0	4.0
교육부	81.8	88.8	93.0	3.5
- core schools	57.7	61.6	63.9	1.8
내무부	19.0	20.8	20.6	-3.2
법무부	10.4	11.0	11.8	4.3
법률 고문부(Law Officers' Departments)	0.8	0.9	1.0	7.6
국방부	34.8	37.5	38.4	1.7
단일정보계정(Single Intelligence Account)	2.8	2.8	3.0	2.8
외교·연방·개발부: 외교	7.7	8.4	8.3	0.6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 지방정부	9.6	12.5	14.3	10.2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 주택·지역사회	3.3	3.8	3.8	7.5
문화·미디어·스포츠부	1.5	1.5	1.5	-2.5
과학·혁신·기술부	0.3	0.4	0.4	12.4
교통부	7.9	8.2	8.2	-0.7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1.3	1.6	1.6	8.8
환경·식품·농촌부	4.7	4.8	4.8	-1.9
산업·통상부	1.6	1.8	1.8	3.7
노동·연금부	8.4	9.0	10.1	6.4
국세청	6.0	5.2	5.8	4.1
재무부	0.4	0.3	0.4	0.7
내각부	0.9	0.8	0.8	-7.4
스코틀랜드 정부	37.4	39.3	41.1	2.3
웨일스 정부	16.4	16.9	17.7	1.3
북아일랜드 행정부	14.8	15.2	16.0	1.5
소규모 독립기관들	2.4	2.6	2.8	6.8
개혁 및 혁신 기금	0.0	0.0	0.2	-
예비비(Reserves)	0.0	0.0	4.1	-
자원 부처별 지출한도(감가상각 및 세금 변경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 반영 제외)	452.2	484.2	512.4	3.3%
세금 변경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 반영	0.0	0.0	4.7	-
자원 부처별 지출한도(감가상각 제외)	452.2	484.2	517.2	-

주: 각 회계연도의 금액은 경상가격(current price) 기준
 자료: HM Treasury, Autumn Budget 2024, 2024.10, p.37, Table 1.9

〈 표 12 〉 자본 부처별 지출한도

(단위: 십억파운드, %)

구분	실적	Baseline	계획	연평균 실질 증가율	실질 증가율
	2023-24	2024-25	2025-26	2023-24 ~ 2025-26	2024-25 ~ 2025-26
보건·사회복지부	10.5	11.8	13.6	10.9	12.8
교육부	6.2	5.5	6.7	2.2	19.3
내무부	1.3	1.9	1.5	5.2	-20.9
법무부	1.5	1.8	2.0	14.9	11.0
법률 고문부(Law Officers' Departments)	0.0	0.1	0.1	2.4	7.1
국방부	19.1	19.5	21.4	3.4	7.6
우크라이나 - 특별수익 가속대출(ERA)	0.0	0.8	0.8	-	-
단일정보계정(Single Intelligence Account)	1.4	1.4	1.5	1.7	6.1
외교·연방·개발부: 외교	3.4	2.8	3.9	4.3	35.3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	6.8	8.5	8.8	10.7	0.9
문화·미디어·스포츠부	0.5	0.8	0.7	16.2	-11.3
과학·혁신·기술부	12.4	13.3	14.7	6.4	7.6
교통부	22.1	20.6	21.8	-3.1	3.3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5.1	7.5	8.4	25.2	10.1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 탄소 포집·활용·저장 및 수소 프로젝트	-	1.4	3.7	-	-
환경·식품·농촌부	2.1	2.3	2.7	12.6	16.8
산업·통상부	1.0	1.7	1.5	19.8	6.1
노동·연금부	0.6	0.7	0.7	5.0	-1.2
국세청	0.7	0.7	0.9	7.1	22.0
재무부	0.0	0.0	0.1	-	-2.3
내각부	0.4	0.4	0.5	-1.1	0.5
스코틀랜드 정부	6.0	6.0	6.5	2.3	7.1
웨일스 정부	3.1	3.2	3.4	1.3	2.4
북아일랜드 행정부	2.1	2.0	2.2	-0.3	6.6
소규모 독립기관들	0.3	0.4	0.4	9.6	1.8
예비비(Reserves)	0.0	2.8	2.7	-	-
예산 조정	0.0	-1.2	0.0	-	-
자본 부처별 지출한도	106.8	116.6	131.3	8.3	9.9

주: 각 회계연도의 금액은 경상가격(current price) 기준
 자료: HM Treasury, Autumn Budget 2024, 2024.10, p.38, Table 1.10

[참고 2] 재무부의 공공지출 감사(audit of public spending) 결과¹⁹⁾

» (배경) 지난 7월 조기 총선을 통해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신임 재무부 장관 레이첼 리브스는 2024-25회계연도 공공지출에 대한 감사를 지시

» (감사 결과) 자원 부처별 지출한도에서 2024년 3월 전망 대비 219억파운드의 초과 지출이 예상되고, 이러한 초과 지출 압력의 원인은 다음 4가지

- 2021년 지출검토 이후 자금조달 계획이 없는(unfunded) 여러 정책 결정으로 인해 2024-25회계연도 지출 압력이 총 26억파운드 증가
- 2021년 지출검토에서 2024-25회계연도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할 때 예측된 향후 3년의 누적된 물가상승의 영향이 예상보다 커 최소 150억파운드의 지출 압력이 증가
 - 2021년 지출검토에서 예산책임청(OBR)은 향후 3년 동안 누적된 물가상승률을 약 7%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2년 간 누적 물가상승률은 약 13%를 기록하였고 3년으로는 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망명과 이민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철도 승객 수요의 더딘 회복 등, 국내외의 최근 이슈로 인해 지출 압력이 상당히 증가
- 2021년 지출검토에서 공공부문 근로자 급여 인상률*을 향후 3년 동안 각각 3%, 2%, 2%로 적용하였으나, 실제로는 2022-23회계연도에 5%, 2023-24회계연도에 6%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2024-25회계연도의 급여 지출 압력 또한 증가

* 공공부문 근로자 급여 인상률은 독립적인 급여 검토 기관인 PRBs(Pay Review Bodies)의 권장 사항에 따라 설정

» (즉각적 조치) 보수당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 중 자금조달 계획이 없는 정책을 철회하는 등, 향후 2년간 약 135억파운드를 절감

1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 국제기구 및 주요국」, 2024.8, pp.40-41, 저자 재인용

20) 주요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 국제기구 및 주요국」, 2024.7. pp.48-49 참고

〈 표 13 〉 공공지출 감사에 따른 즉각적 절감 조치

(단위: 백만파운드)

부처	절감 내용	절감액	
		2024-25	2025-26
모든 부처	행정 예산 2% 삭감, 커뮤니케이션(의견청취, 공청회 등) 관련 비필수 지출 중단, 2024-25회계연도 컨설팅 관련 비필수 지출 중단, 2025-26회계연도 컨설팅 지출 절반 삭감	3,150	3,150
노동·연금부	2024-25회계연도 겨울부터 동절기 연료 보조금(Winter Fuel Payment) 대상 축소	1,400	1,500
내무부	르완다 이주 파트너십 종료 및 불법이주법(Illegal Migration Act)의 소급 적용 종료	800	1,400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	투자기회기금(Investment Opportunity Fund) 사업 및 기타 소규모 프로젝트 철회	70	50
보건·사회복지부	성인 사회적 돌봄 비용 개혁(adult social care charging reform)(돌봄 비용 부담 상한 설정, 자산에 따른 돌봄 비용 차등 지원 등) 중단	30	1,075
교통부	교통 인프라 포트폴리오 검토, A303 스톤헨지 터널 및 A27 계획 철회, 철도 복원 프로그램 철회	0	785
교육부	A레벨(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을 대체하는 고급영국표준(Advanced British Standard) 철회	0	185
합계		5,455	8,145

자료: HM Treasury, *Fixing the foundations - Public spending audit 2024-25*, 2024, p.9, Table 2, 재구성

» (중장기적 조치) 공공지출 통제를 위한 3단계 계획을 시행

- 추가적인 절감 분야를 파악하고 2024-25회계연도의 부처별 지출한도를 재설정하여 이를 2024년 10월 30일에 가을 예산안을 통해 발표
- 2025년 봄에 지출검토를 통해 중기적인 지출 통제를 시행하고 정부의 광범위한 재정 전략에 따라 지출 정책을 설정
- 지출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혁을 시행하고, 재무부와 예산책임청이 공유하는 정보의 투명성을 개선하여 초과 지출 압력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통제(이하 개혁 관련 세부사항은 예산 책임헌장을 개정하여 명시)
 - 충격(shock)에 직면할 경우에도 부처별 지출을 재계획할 수 있도록 5년의 예측기간에 대한 지출검토를 2년마다, 최소 3번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공서비스를 중기적으로 계획
 - 예산책임청은 현재 및 다음 회계연도의 부처별 지출 압력에 대해 평가하고 재무부는 이를 공유(정부는 부처별 과소 지출 또는 초과 지출 가능성을 총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GDP 대비 1% 이상의 대규모 재정정책 수립 시 예산책임청의 독립적인 평가를 의무화 하는 ‘fiscal lock’²⁰⁾ 규정을 도입

4 | 주요 정책

가 국가의료서비스(NHS) 개선과 공공서비스 개혁

» (NHS 및 공공서비스 개선) NHS 개선, 국경 안전 강화, 범죄 대응 강화, 교사 신규 채용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

- (NHS) 정부의 NHS에 대한 우선 지원에 따라, 보건·사회복지부의 자원지출은 2023-24회계연도부터 2025-26회계연도까지 226억파운드 증가(2년 평균 실질 증가율 4.0%)
 -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율로, NHS가 매주 4만건의 추가 선택 진료를 제공하고, 환자들이 18주 이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
 - 또한 새로운 수술 허브와 진단기기에 대한 자본투자도 이루어질 예정
- (교육) 교육시스템에 대한 자원지출이 2023-24회계연도부터 2025-26회계연도까지 112억 파운드 증가(2년 평균 실질 증가율 3.5%)
 - 이는 핵심 학교 지원, 정부 지원 어린이 보육 확대(무료 아침식사 클럽 도입 등), 평생 교육을 통한 기술 개발 등에 사용
 - 또한 학교 재건 프로그램(school rebuilding programme)과 학교 유지보수 등에 자본지출이 투입될 예정
- (사법·치안) 사법 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무부 예산은 2023-24회계연도부터 2025-26회계연도까지 19억파운드 증가(2년 평균 실질 증가율 5.6%)하고, 내무부 예산은 18억파운드 증가
 - 이는 경찰 인력 지원, 교도소 확장, 교도소 및 보호 관찰 인력 충원, 교도소 유지보수, 법정 처리 속도 개선 등에 사용
- (국방) 군사력 강화 및 국가 안보, 지정학적 불안정 대응 등에 지출될 국방부 예산은 2023-24 회계연도부터 2025-26회계연도까지 29억파운드 증가(2년 평균 실질 증가율 2.3%)
 - 국방 예산은 2025-26회계연도까지 경제 성장에 맞춰 증가하고 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정한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 2% 목표를 초과
-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잉글랜드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의 포괄적인 조치를 통해 이를 지원
 - 핵심 지출 권한(core spending power)을 2025-26회계연도에 실질적으로 3.2% 증가시키고, 13억파운드의 신규 보조금을 배정(사회복지 부문 6억파운드 포함)

- 특수교육 및 대체교육 제공을 위한 예산을 증액(10억파운드)하고, 친척 및 위탁 가정을 위한 신규 자금도 배정하여 아동의 사회복지를 강화
- 영국공동번영기금²¹⁾을 1년 더 연장하여 지역 성장을 위해 투자
- (자치정부(Devolved Governments)) 2023-24회계연도부터 2025-26회계연도까지 66억 파운드의 추가 자금이 지급되는데, 그 중 스코틀랜드 정부에 34억파운드, 웨일스 정부에 17억 파운드, 북아일랜드 행정부에 15억파운드 배정
 - 이를 통해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전역에서 학교, 주택, 보건, 사회복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가능
- (보상) Post Office Horizon IT(우체국의 금융 전산망 오류)와 오염 혈액으로 인한 감염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
 - Post Office Horizon IT 사건에 대해 2024-25회계연도부터 약 18억파운드, 오염 혈액 사건에 대해 2024-25회계연도에 약 118억파운드 배정

나

근로자의 생활수준 보호

» (생활비 지원) 최저임금 인상, 돌봄 수당 주간 소득 한도 인상 등을 통해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

- 2025년 4월부터 21세 이상의 시간당 법정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을 6.7% 인상하여 12.21파운드로 설정
 - 또한 현재 나이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최저 임금수준을 점차 단일화하기 위해 18~20세의 시간당 법정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을 역대 최대인 16.3% 인상하여 10.00파운드로 설정
 - ◆ 이를 통해 약 20만명 청년의 연봉이 평균 2,500파운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돌봄 수당²²⁾ 주간 소득 한도(Carer's Allowance Weekly Earnings Limit)를 법정생활임금 기준, 16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196파운드로 인상하여 돌봄자의 유연성과 경제적 안정을 증진
 - 이는 1976년 돌봄 수당이 도입된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6만명 이상의 돌봄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에서 통합급여²³⁾로의 이동을 가속화

21) UK Shared Prosperity Fund: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사회 간 불평등 감소를 위해 설립된 기금

22) Carer's Allowance: 주당 최소 35시간 동안 누군가를 돌보되 돌봄 대상자가 장애수당 등 특정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돌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주당 81.9파운드). 이때 돌봄자는 주당 세후소득이 151파운드 이하(주간 소득 한도)여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이 요구됨

23) Universal Credit: 4개의 사회보장급여(소득기반 구직자수당, 고용·지원수당, 소득보조, 주거급여)와 2개의 조세급여(근로세액공제, 아동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한 급여로, 세분화된 사회보장급여 체계를 간결하게 만들어 복지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에 도입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현대적인 급여 제도로 유입시키고 구직 및 이직을 지원

-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해 도움이 가장 필요한 가구에 추가 지원을 지속
 - 잉글랜드의 가구지원기금²⁴⁾,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주거비 보조 제도²⁵⁾ 확대를 위해 2025-26회계연도에 10억파운드 지원
 - ◆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식량, 에너지, 물과 같은 필수품 비용 지원을 포함해 어려움과 재정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돕는데 사용

» (세금과 근로자) 공공재정 회복과 공공서비스 자금 확보를 위해 세금 관련 어려운 결정이 요구되나, 근로자에 대한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공약을 지키면서 지원을 지속

- 근로자의 소득세와 국민보험기여금,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 세율, 고세율, 추가 세율 인상은 없을 예정
 - 또한 소득세와 국민보험기여금 기준(threshold)에 대한 동결은 연장하지 않고, 2028년 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
- 근로자 지원을 위해 연료세는 현재 수준에서 1년 동안 동결되고, 휘발유와 경유의 1리터당 5펜스 인하 정책은 1년 더 연장되며, 2025-26회계연도에 예정된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 계획은 취소
 - 이를 통해 자동차 운전자는 2025-26회계연도 동안 평균 약 59파운드를 절약
- 2025년 말까지 연료 가격에 대한 오픈 데이터 계획 및 시장 모니터링 기능인 Fuel Finder를 구현하여 도로 연료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개선하며 운전자가 가장 저렴한 연료 가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

다 영국 재건

» (인프라 투자) 긴축정책으로 돌아가지 않고, 향후 5년 동안 1,000억파운드 이상의 공공투자를 증가시켜 국가의 기반을 재건하고, 미래 산업을 지원

- 내년 자본투자는 130억파운드 증가하며, 이는 지방도로 유지보수와 지방 교통에 대한 투자, 일상 여행 지원, 지방 도시와 마을의 성장 촉진 등에 사용
-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및 기술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Project Gigabit²⁶⁾와 Shared Rural Network²⁷⁾ 등에 투자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와 농촌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

24) Household Support Fund: 저소득층 가구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0월에 도입된 기금으로, 지자체를 통해 배분되어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가장 필요한 가구에 대해 식비, 에너지 요금, 주거비 등, 생활 필수 비용을 지원

25) Discretionary Housing Payments: 주거비 지원(주거급여 또는 통합급여의 주거비)이 충분하지 않은 가구에 추가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26) 국가적 광대역 인프라 프로젝트

- 새로운 주택 패키지에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Affordable Homes Programme)에 대한 신규 자금을 포함하는 등, 주택 공급에 대해 50억파운드 이상 투자
 - 중소기업과 Build to Rent²⁸⁾ 분야에 30억파운드를 추가 투입하여, 주택 시장의 다양성과 강화된 민간 주택 시장을 지원
- » (소상공인 지원) 상업 중심가 및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주거용 재산세(business rates)를 개편하고, 소규모 양조업체와 펍(pub)을 지원하는 세금 인하 정책을 수립
- 2026-27회계연도부터 상업 중심가의 소매업, 숙박업, 여가업 부동산에 대해 비주거용 재산세를 영구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도입
 - 이 세금 인하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가장 가치가 높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
 - 중소기업의 세율 동결과 세금 감면(Small Business Rates Relief)으로 100만개 이상의 소규모 상업시설을 물가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로부터 보호
 - ◆ 소매업, 숙박업, 여가업의 사업체에는 40%의 세금 감면을 적용(한 업체당 최대 11만파운드에 해당)
 - 비주거용 재산세 협의문서(Discussion Paper)를 발간하여 대상이 되는 우선 분야를 설명하고, 공정한 세율 시스템을 공동 설계할 수 있도록 사업체와 협의를 진행
 - 펍에서 판매되는 주류의 약 60%를 차지하는 적격 생맥주(draught)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소규모 생산자 감면(Small Producer Relief)을 정비하는 등, 소규모 양조업체(brewer)를 지원
 - 관세 인하 규모는 연간 8,500만파운드 이상으로, 이는 평균 농도의 생맥주 한잔 당 1페니의 세금 인하에 해당

라

공공재정 회복

- » (복지시스템 사기·오류 대응) 복지 시스템의 사기와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여 공공재정 개선과 공공서비스에 투자
- 복지 시스템 사기와 오류로 인해 정부는 연간 100억파운드의 비용을 지출
 -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복지 사기·오류 예산 패키지를 발표하여 향후 5년 동안 92억파운드를 절감할 계획

27) 모바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디지털 격차 해소와 농촌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

28)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 주택 개발 모델로,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위한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하는 방식

- 노동·연금부와 국세청에 3,180명의 추가 인력을 배치하여 복지시스템 사기·오류를 감시하고 대응(28억파운드 절감)
- 통합급여 청구 변경 사항에 대한 검증을 강화(10억파운드 절감)
- 통합급여 부정 수급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사례 검토(Targeted Case Review)를 확대(39억파운드 절감)
- 사기·오류 및 채무 법안(Fraud, Error and Debt Bill)을 통해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활용해 급여가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9억파운드 절감)
- 사기·오류 및 채무 법안을 통해 노동·연금부의 채무 회수 권한을 강화(6억파운드 절감)

» (조세 격차 해소) 공공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세금 변경을 고려하기 전에, 모든 납세자가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

- 시스템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2029-30회계연도까지 연간 65억파운드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조세 격차 해소 패키지(package to close the tax gap)를 발표
 - 5,000명의 규정 준수 직원(compliance staff)을 추가로 모집하고, 1,800명의 채무 관리 직원을 배치하는 등, 납세자가 미납한 세금을 더 효과적으로 징수하는 조치를 포함
- 국세청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세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IT 및 데이터 시스템을 현대화
- 법인차량 세금 규정에서 발생하는 허점을 막기 위해 '인위적인 차량 소유 구조'(contrived car ownership)²⁹⁾를 종료하는 법안을 마련
- 연체된 세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상하여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 납부하도록 유도
- 국세청의 형사 조사 기능을 확대하는 등, 악명 높은 세무 사기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마련

» (공공서비스 자금 조달을 위한 세수 확대) 이전 정부와 달리³⁰⁾ 세금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통해 세수를 증대시켜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

- 고용주의 국민보험기여금 요율을 13.8%에서 15%로 인상하고, 2025년 4월부터 고용주가 국민보험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직원 당 소득 기준(Secondary Threshold)을 기존 9,100파운드에서 5,000파운드로 하향 조정
 - 이러한 변경 후에도 영국의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과 급여세의 GDP 대비 비율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고, G7 국가들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공정한 방식으로 세수를 늘리되, 고용 수당³¹⁾을 확대하여 소규모 사업체는 보호

29) 일부 회사들이 차량을 직원에게 제공할 때, 차량을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동시켜 세금 혜택을 부당하게 취하는 경우 발생

30) 이전 보수당 정부는 향후 몇 년 동안 GDP 대비 부처별 경상지출을 상당히 감소하는 방향으로 계획

- 고용 수당을 10,500파운드로 상향 조정하여 규모가 작은 사업체를 보호하고, 10만파운드의 자격 한도도 폐지
 - ◆ 이를 통해 86만 5,000개 사업체가 국민보험기여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게 되는 등, 국민보험기여금을 납부하는 고용주 중 절반 이상이 납부 부담이 줄어들거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안정성 제공) 이번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 로드맵(Corporate Tax Roadmap)을 발표하여 기업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

-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수준인 25%를 유지(G7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
-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 제도를 유지
 - 적격 주요 공장 및 기계 투자에 대한 100% 자본공제(full expensing), 100만파운드 한도의 연간투자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를 포함
- 중소기업에 대한 R&D 세액 공제의 관대성(generosity)을 유지
 - 관대성은 높은 세액 공제율, 자격이 되는 R&D 비용의 넓은 범위 등을 의미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조세 시스템) 공공재정 회복과 공공서비스 자금 증가는 세수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나, 근로자를 보호하고 세제 시스템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조정

- 자본이득세(CGT)³²⁾를 인상하여 세수를 증대하되, 영국 세제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
 - 2024년 10월 30일부터 저세율은 10%에서 18%로, 고세율은 20%에서 24%로 인상하여 주거용 부동산 세율과 동일하게 조정
 - 사업자 공제(Business Asset Disposal Relief)나 투자자 감면(Investors' Relief)의 경우 적용받는 저세율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사업주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제공
 - ◆ 2025년 4월 6일부터 14%로 인상, 2026년 4월 6일부터 18%로 인상
- 부유한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공공재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상속세 시스템을 개편
 - 면세 기준은 현재 325,000파운드로, 이는 2028년 4월까지 동결될 예정이었으나 2030년 4월까지로 연장
 - 2026년 4월부터 농업 재산 공제(Agricultural Property Relief)와 사업 재산

31) Employment Allowance: 직전 과세연도 기준으로 10만파운드 이하의 국민보험기여금을 납부했던 자선단체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고용주의 국민보험기여금을 최대 5,000파운드 감면해주는 제도

32) Capital Gains Tax: 자산 처분 시 가치 상승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성인의 1%미만만이 이를 납부

공제(Business Property Relief)를 개편

- ◆ 농업 재산과 사업 재산에 대한 면세는 100만파운드까지 100% 적용하고, 100만파운드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적용
- ◆ 상장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사업 재산 면세율은 50%로 하향 조정
- 2027년 4월부터 상속 연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여 연금을 상속세 계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

- 예방 중심의 건강 정책을 강화하고, 건강에 해로운 활동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
 - RPI+2%p(소매물가 상승률에 2%p를 가산) 방식으로 담배세를 인상하고, 손으로 말린 담배에 대해서는 올해 추가로 10%의 세금을 인상
 - 2026년 10월부터 전자담배 액상에 대해 10ml당 2.2파운드의 고정세율을 적용하는 전자담배세(Vaping Products Duty)를 도입
- 주세(alcohol duty)를 소매물가 상승률에 맞춰 인상하되, 펍에서 판매되는 음료는 대부분 세금 인상에서 제외하여,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책임감 있는 음주를 장려

» (세금 관련 공약 이행) 세금 시스템, 에너지, 주택, 교육 분야에서 주요 변화를 추진

- 2025년 4월 6일부터 기존의 거주지 상태(domicile status) 개념을 폐지하고, 거주지 기반(residence-based)의 세금 체계로 전환
 - 이는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영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의미
 - 이에 따라 해외 신탁(offshore trusts)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종료하고, 외국 소득에 대한 첫 해 50% 세금 인하 계획을 폐지
- 2026년 4월부터 운용 성과보수(carried interest)는 소득세 체계 내에서 전면 과세
 - 현재 운용 성과보수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자본이득세 세율은 2025년 4월부터 28%에서 32%로 인상
- 2024년 10월 31일부터 추가 주택에 대한 인지세(Stamp Duty Land Tax) 고세율을 3%에서 5%로 인상
 - 이를 통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과 기존 주택에서 이동하려는 소유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
- 에너지 이익 부담금(횡재세)(Energy Profits Levy) 세율을 38%로 3%p 인상하고, 29%의 투자 공제(investment allowance)를 폐지하며, 이 부담금 적용 기간을 2030년 3월 31일까지 연장
- 2025년 1월부터 사립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기숙 서비스 비용에 대해 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2025년 4월부터 사립학교에 대한 비주거용 재산세의 자선단체 감면(charitable rate relief)을 폐지

- 이를 통해 2024-25회계연도부터 2029-30회계연도까지 연평균 18억파운드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

마 재정 프레임워크 강화

» (재정준칙 개정)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목표(재정준칙)를 개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재정 프레임워크를 구축

- (현행³³⁾) 재정 목표(fiscal mandate)로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와 보완적 목표(supplementary target)로 공공부문 순차입, 복지지출 한도 규정을 설정
 - (채무 준칙) 전망 기간 중 다섯 번째 회계연도³⁴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 비율은 감소
 - (재정수지 준칙) 전망 기간 중 다섯 번째 회계연도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 비율은 3% 초과 금지
 - (복지지출 한도) 2024-25회계연도 복지지출을 재무부가 사전에 설정한 복지지출 한도와 마진(margin) 이내로 관리
- (개정³⁵) 재정 목표로 경상재정수지와 보완적 목표로 공공부문 순금융 채무, 복지지출 한도 규정을 설정
 - (재정수지 준칙) 2029-30회계연도가 전망 3년차가 되는 시점인 2026-27회계연도까지 2029-30회계연도의 경상재정수지는 흑자
 - ◆ 그 이후부터 경상재정수지는 균형* 또는 흑자를 유지
 - * 균형은 흑자 또는 GDP 대비 0.5%를 넘지 않는 적자 범위를 의미
 - (채무 준칙) 2029-30회계연도가 전망 3년차가 되는 시점인 2026-27회계연도까지 2029-30회계연도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금융 채무 비율은 감소
 - (복지지출 한도) 2029-30회계연도 복지지출을 재무부가 사전에 설정한 복지지출 한도와 마진 이내로 관리

» (재정의 효율적 사용) 정부는 납세자들의 돈이 효과적으로 지출되도록 하는 데 전념

- VfM³⁶) 사무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다음을 수행

33) HM Treasury, *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 Autumn 2022 update*, 2023.1.

34) 예를 들면, 2024년 3월 봄 예산안 기준으로는 2028-29회계연도가 됨

35) HM Treasury, *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 Autumn 2024*, 2024.10.

36) Value for Money: 자원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해 최상의 결과를 얻도록 하는 원칙으로,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경제성(economy)을 기준으로 공공서비스의 성과를 측정

- 지출검토 2단계 결정과 관련해 재무부에 자문을 제공
 - ◆ 낭비와 비효율성 근절 방안 평가, 부처별 지출 중 고위험 분야의 비용 대비 가치 실현 연구, 투자 제안이 비용 대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포함
 - 과거의 교훈, 국제적 최적 사례, 외부 기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시스템 개혁에 대한 권고안을 개발
 - 코로나19 부패 감시관(Covid Corruption Commissioner)을 임명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제도를 악용³⁷⁾한 회사로부터 공적 자금을 회수
 - 지난 7월, 공공지출 감사 결과에 따른 절감 공약을 이행하고, 잉여 재산을 계속 처분하여 2030년까지 최소 10억파운드의 수입을 목표
 - 지출검토 1단계에서 지출 우선순위를 정함과 동시에 절감 기회를 포착
 - 르완다와의 이민 및 경제 개발 파트너십³⁸⁾ 취소 후, 망명 신청 대기자 수 감소로 2024-25 및 2025-26회계연도 동안 22억파운드 절감 예상
 - 부처 전반에 상당한 효율성을 실현
 - ◆ 국세청의 경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2025-26회계연도에 1억 700만파운드 절감
 - ◆ 노동·연금부의 경우, 서비스 현대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2025-26회계연도까지 2억 5,000만파운드 이상 절감
- » (지출검토 2단계)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션 중심, 기술 기반, 개혁 주도의 접근 방식을 통해 공공지출을 배분할 계획으로, 최종 보고서는 2025년 늦은 봄에 발표
- (미션 중심) 각 부처가 협력하여 핵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맞춰 자금을 배분
 -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의 디지털화, 생산성 향상, 성과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이 기술을 최대한 활용
 - (개혁 주도) 공공지출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예방적 접근 방식을 채택
 - 개혁의 우선순위로는 보건, 지방정부 및 권한 이양, 아동 사회복지, 특수교육(SEND), 노숙자 문제, 경찰, 교도소, 망명, 국방, 교통, 공무원 분야를 선정

37) 고용유지지원금(Furlough Scheme)은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시키는 경우 급여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나, 직원을 실질적으로 계속 일하게 하면서 정부에는 휴직상태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

38) Migr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 with Rwanda: 난민들의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2022년 4월에 도입된 난민정책으로, 망명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보내 심사를 받게 하고, 그 대가로 르완다에 3억 7,000만파운드의 개발자금을 제공. 또한 300명 이주 시 1억 2,000만파운드를 추가로 제공하고, 이주한 사람 한 명당 최대 171,000파운드를 지불(출처: UK Parliament, "UK-Rwanda Migr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 Research Briefing, 2024.5.29.)